

화순 춘양초, '같이 캠핑할래! 봄별누리 한마음캠핑' 실시

학생 자치 활성화로 학생들이 내놓은 의견 반영해 기회 마련 학생·학부모·교직원참석해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시간 가져

학교 전체가 온통 초록으로 눈부신 춘양초등학교는 학생들이 꿈·도전·사랑을 키워가는 행복한 학교로 거듭나며 학생들의 미래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도전의식을 키우면서 서로 협동하고 배려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기르기 위한 봄별누리 한마음 캠핑을 지난 16일에 실시하였다.

오전 수업을 마치고 오후 1시20분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학부모님께서도 많이 참석하시어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학생 자치 활성화로 학생들이 다모임을 통해 내놓은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한마음 캠핑에는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가 확대되는 기회가 되었다.

춘양초만의 차별화된 한마음 캠핑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들이 맛있는 캠핑요리를 하며 음식솜씨를 발휘하였다. 학생들은 모처럼 학교 운동장에서 자신들이 만든 맛있는 저녁 식사 요리를 즐겁게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캠핑을 위해 평상시에 다모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으며 학교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맛있는 저녁식사 후에는 공연(마술, 버블,

발룬, 섀도우) 관람을 하였는데 학생들은 실제 눈앞에서 펼쳐진 신기루 같은 마법의 세계에 빠져들어 신기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였고 여기저기 울려 퍼지는 합성 소리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은 공연관람의 재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6학년 OO학생은 "초등학생으로서 마지막 캠핑인데 정말 신나고 즐거운 시간을 가져서 너무 좋았고 이 경험을 가지고 더욱 앞으로 즐겁게 지낼 것 같다"고 하였다. 1학년 OO학생은 춘양초에 다닌 것이 너무 기쁘다"고 표현하였다.

학생들이 다모임 시간을 통해 의사표현을 하면서 게임을 선정하고, 지켜야 할 규칙들을 지키면서 단체활동을 하는 이 과정을 통



해서 학생들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을 배우고 우리 사회의 밝은 꿈나무로 성장할 것이다.

학교 관계자는 "요리 재료를 준비해주고 기본을 만들어 주면서 조금은 힘들었지만 학생들이 좋아하는 모습에서 나의 수고로움을

행복함으로 변했다"고 전했다.

꿈·도전·사랑을 키워가며 행복한 학교를 꿈꾸는 춘양초등학교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학생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

영광 법성중, 탄소중립과 연계한 스포츠문화체험 운영



법성중학교는 지난 16일 광주 기아캐피탈스

재활용품 활용한 응원전 펼쳐

필드에서 학생 51명과 함께 재활용품을 활용한 응원전을 2시간에 걸쳐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교과 연계 환경교육부터 시작되었다. 학교 도서관에서 광주지방기상청에서 주관하는 기후변화위기대응교육 강의를 2시간 진행하였다. 강의 후반부는 환경보드게임을 하면서 학생들이 경제활동에서 기업들이 이익을 추구할수록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관계를 학습하였다.

오후에는 광주에너지 파크 해담마루에서 해설사 선생님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를 학습하였다. 태양광 발전을 하여 낮에 모은 태양 에너지가 저녁에 상무시민공원에 조명으로 기능하는 내용을 공부하였다.

이 외에도 법성중학교는 평소 우유곽 재활용, 폐건전지 모으기, 플라스틱 병뚜껑 모으기를 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텃밭가꾸기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7월에는 학교 텃밭 작물모차린 비건 밥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영광=서희원 기자

여수 쌍봉초병설유치원, 오감만족 '도예체험'



를 이용해 다양한 모양으로 나만의 화분을 만

쌍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지난 19일 오후 본원에서 방과 후 놀이배움터 사업의 일환으로 유치원 전체 원아를 대상으로 '찾아오는 도예체험'을 실시하였다.

도예체험은 등토

들고 물레를 이용하여 직접 흙을 만져보면서 흙놀이의 즐거움과 자연에 대한 감사함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방과후 놀이배움터는 교육공동체 협력을 바탕으로 놀이중심 교육과정과 연계된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며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유아들에게 생태감수성과 오감을 기르기 위해 다양한 흙놀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여수=김현근 기자

광주시교육청, 2023 '光탈페(광주학생탈렌트페스티벌)' 추진

학생이 직접 주도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광주시교육청이 학생주도 오디션 프로그램 '光탈페(광주학생탈렌트페스티벌)'를 본격 추진한다.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光탈페'는 학생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학생주도형 예술 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는 학생의 다양한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특히 광주고등학교학생회가 중심이 돼 학생들

이 다양한 끼와 재능을 펼치고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학생주도형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학생의 흥미·소질을 반영한 다양한 분야의 예술 활동 기회 제공을 통해 학생들의 활력을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 중심의 예술 소통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

'光탈페'는 올해 첫발을 댄다.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K-Pop 댄스, 밴드, 보컬, 연주, 뮤지

컬, 국악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 공연 기회를 제공한다. 광주의 학생들이 예술적 재능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물론 K-Culture를 대표하는 예술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구글폼(<https://url.kr/dy9ti7>)을 통해 오는 7월6일 22시까지 가능하다. 예선(오디션)을 거쳐 9월2일 ACC(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야외무대에서 본선(페스티벌)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서선옥 기자

진도 조도초, 섬으로 찾아가는 글쓰기 교실

진도 조도초등학교는 지난 13~14일 이틀간, 글로 피어나는 섬 이야기를 주제로 글쓰기 교실을 운영하였다. 조도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이 글쓰기 교실에 참여하였다.

학교 특색교육인 독서교육과 연계하여 광주 교대 국어교육과와 연계한 8시간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의적 발상 훈련, 자료를 읽고 토론하기, 토론 내용을 자기 서사로 표현하기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신장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개개인의 삶을 돌아보고 표현하는 성찰적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머릿속에 있는 다양한



생각들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학생들은 평상시에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글로 표현하는데에 큰 자신감이 생겼을 것으로 확신한다.

진도=조상용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